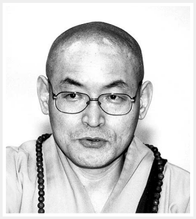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 '종이 거울 자주보기' 펼쳐

"종이거울로 마음을 비춰보세요"

불교의 포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로써 법을 설하는 설법이고, 둘째는 글로써 법을 전하는 전법이다. 그래서 옛부터 절마다 수시로 재(齋)를 열어 법을 설했고, 또 출판사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목판을 찍어 책을 엮어 내었다.

포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 젊의 역할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실천적 방법인 포교라고 한다면 말과 글을 빌리지 않고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로 인해 젊이 해야 할 일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근간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불광사의 광덕 스님께서도 새 불교운동을 시작하면서 월간 <불광>이라는 매체를 적극 이용해 그 터전을 닦았다. 불광사의 여러 가지 새불교운동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불서 읽기' 운동이었다.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 글(文書)이 갖는 힘은 그 위력이 엄청나다. 인류 발전의 근본 동력은 바로 이 말과 글에 있었다. 특히 문서의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 모든 문화는 창조되었고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했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책이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글이고 책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좀처럼 변치 않을 것으로 본다. 마치 기초과학의 토대 없이 새로운 과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글을 통해 인간의 사유를 넓히지 않고는 새로운 문명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불교가 자체의 문헌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는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때문에 광덕 스님께서는 전국의 각 절마다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염원했다.(<광덕스님 시봉일기> 3권)

문서 통한 전법의 장 마련이 중요
어려울수록 책 속에서 지혜 찾아야

절마다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함은 '불서 읽기'의 실천적인 토대가 되고 글을 통한 전법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불사가 되며,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 문화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광덕 스님이 개산하신 우리 도피안사에서는 뜻있는 분들이 벌이는 범국민독서운동인 '종이거울 자주보기' 본부를 자원했다.

돌아보건대 역사 속에 모든 성현들은 책을 귀중히 여겼고, 애국지사 도산 안창호 선생은 '책을 읽는 민족은 흥한다' 고까지 말했으며, 불교계의 용성 큰스님을 비롯한 선각자들께서는 책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삼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의 선진국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국민들이 오히려 더 책을 많이 본다고 한다. 그것은 책에서 삶의 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경제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제일 먼저 책을 보지 않고 사지 않는다니 대관절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우리 불자들은 구국구세의 보살심으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리라. '우리거울은 내 몸을 비춰주고 종이거울은 내 마음을 비춰준다' 고 했으니 종이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불자수행이기에.

'종이 거울 자주보기' 동참
전화 : (031)676-8700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윤창화 씨 '불서 읽기' 나서

"불서읽기 통한 지식 업그레이드"

불자들을 향하여 '책 좀 읽으라' 고 소리친 지도 20년이 넘는다. 이제는 목이 쉬고 아파서, 기실은 가슴팍이 부서져 소리칠 힘마저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딱딱한 이야기 같지만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스님, 또는 불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몇몇 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사찰에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법보시 책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불자들의 연간 독서량은 고작해야 0.3 권 정도에 불과하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왜 책(불서)을 읽지 않을까? 첫째는 경전이나 책을 경시하는 한국 선불교의 전통적인 악습에 기인한다. 스님들 자신이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불자들 역시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내로라' 하는 선승들의 경우 더욱더 심하여 일반 불자들에게까지도 '책을 읽으면 알음알이가 생겨서 깨달을 수 없다' 는 무책임한 법문을 할 정도이다. 이런 풍토 때문에 우리나라 불자들은 전통적으로 책을 읽지 않게 되었고, 책을 경시하게 되었으며, 독서가 습관화되지 못하게 되었고,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불교는 '무식한 불교' 로 추락해 버렸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을 본다면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고 해야 정초나 부처님오신날 또는 초하루 날이나 관음재일, 지장재일, 백중날 정도 절에 나가서 잠시 복을 달라고 졸라대고 올뿐이다. 경전이나 책을 읽는 경우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가뭄에 콩나듯 한다.

불자라면 최소한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등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리는 알아야 하는데도 모르는 불자가 태반이다.

이래가지고는 불교신도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님 제자(불자)라고 할 수도 없다. 불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서야 어떻게 불교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야말로 '불자 지식화 운동'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 일차적인 책임이 스님들에게 있지만, 당사자 역시 맹신의 비판에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입문서 5권 정도만 읽어도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 정도는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책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무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교회 신자들을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나 교리, 성경 등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매일같이 열심히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교처럼 막연하게 법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나 책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배우기 때문이다.

기초 지식없이 법문 의존 습관 '문제'
필독서 선정 · 풍토 조성 등 당면 과제

불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 불교에 대하여 – 벙어리가 되는 이유도 책을 통한 체계적인 신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당사자 역시 기본적인 입문서를 읽지 않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민족사는 불자들의 지적(知的) 향상을 위하여 9월부터 실질적인 '불서읽기 운동' 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례 행사처럼 구호나 캠페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심자를 위한 불서읽기 모임' 을 만들어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부처님 생애를 비롯한 불교교리, 입문서, 개설서 등 기초적인 책을 읽을 작정이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다면 불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한국불교의 체질이 튼튼하게 개선될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독서 풍토가 조성되어 저자는 보다 좋은 책을 쓰고 출판사는 보다 좋은 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불서읽기 운동' 과 '불자 지식화 운동' 은 직접적으로는 출판사의 당면 문제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불교를 걱정하는 사람' 이 아니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불서를 읽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한국불교의 미래도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자로서 필독해야 할 기본 도서 50권' 을 하루 속히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불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불서를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불서 읽기' 동참
전화 : (02)732-2403

문서포교
'남의 일' 아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불교 출판계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문서 포교' 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7월 2일 열린 '불교 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 에는 관련 종사자 50여 명이 모여 다양한 출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불교 출판인들은 사찰 도서관 건립과 사찰의 도서구입예산 편성, 범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 실시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사찰도서관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인근 주민을 위한 지역도서관으로 개방함으로써 포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단이나 사찰에서 연간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해 '불자 필독서' 를 구비하고, 스님들은 법회 때 마다 양서를 선정해 책 읽기를 권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찰마다 도서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바로 '독서운동 전개' 다. 불자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서읽기 운동은 출판계 활성화와 '지식불교' 형성을 겨냥한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주축이 돼 9월부터 전개하게 될 독서운동인 '초심자를 위한 불서읽기 모임' 은 지난해 8월 안성 도피안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이거울 자주보기운동' 과 함께 불교계 내에 책 읽기 바람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 출판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본격적인 불교계 책 읽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각 종단의 본사급 사찰이나 대형 사찰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이 출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사소한 '문제' 풀어야 행복

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

(법륜 스님 지음, 9천원)

사람들은 빡빡한 일상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자연을 찾아 떠나거나 집에서 편안히 몸과 마음을 쉬고 싶어 한다.

<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는 2002년 라몬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에서 가족, 연인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종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인들이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였던 내용을 풀어 만든 책이다.

'냉랭한 부부사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시동생이 부아를 돋웁니다.' '잔소리 참기가 힘듭니다.' 등, 질문들은 아주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법륜 스님의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야말로 누구나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은 어렵게 짬을 낸 휴가철에 몸을 푹 쉬어주고, 마음까지 푹 쉬어 줄 수 있어서 생활을 생생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정토출판 대표 법륜

읽지 않아도 느껴보면 되는 책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낫한 지음, 서보경 옮김, 8천5백원)

몸에는 휴식, 마음에는 양식을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며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으로 틱낫한 스님의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를 권하고 싶다.

이 책에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은 지혜가 가득하다. 가만히 의식적인 호흡을 한다거나 미소를 지어본다거나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이다.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느껴보는 책이라고 하고 싶다. 들어오는 호흡, 내쉬는 호흡을 느껴보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얻는 평화 등 자신이 책을 보고 따라 느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았다고 내 것일 수 없듯이 이 책의 내용 한 줄만이라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느껴 본다면 당신은 어느새 저 깨달음의 언덕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를 하며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음식을 먹으며, 설거지를 하며, 걸으며, 운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여러 명상법을 통해 누구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혜의나무 대표 이의성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대로…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옮김, 5천원)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부처님의 성도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긴 샷짜까경>의 주석서는 부처님께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出入息念)을 통해서 증득한 초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판단하셨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 만큼 이 공부는 불교 수행에서 각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60쪽의 문고판으로 제작된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는 이 공부법에 관한 초기경들 세 가지와 특히 이 주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청정도론> 제8장의 해당 부분을 모두 번역하여 옮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책 한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가르치신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를 정확하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이번 여름에 산사를 찾거나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책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차근차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아침저녁 10분씩만 시간을 내어 본서에서 설명하는 방법대로 참선을 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선사들의 우렁찬 법문과 게송

숨길 수 없는 말

(함현 스님 엮음, 1만3천원)

현재 봉암사에서 가행정진하고 있는 함현 스님이 엮은 <숨길 수 없는 말>은 수행자들과 참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다. 중국 선종에 뿌리를 둔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선지식 60명의 법문과 게송 117편을 우리말로 풀이했다. <전등록>, <조당집>, <오등회원> 등에서 가려 뽑은 법문을 오가칠종으로 분류한 뒤 시대 순에 따라 나누어 원문을 함께 실었다.

인도 벵갈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잇지 않고 출가한 아티샤(982~1054)스님을 비롯해 마조도일, 백장회해, 임제의현, 대혜종고, 나옹혜근, 경허성우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이 종이위의 활자로 되살아났다.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실어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아 참선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함현 스님은 "깨달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 순간순간 불타고 있는 현재라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기를 열망한다"면서 "꽁꽁 얼어붙은 삶을 포근히 안아 주는 열망은 가지가지 방편을 피워내고, 이것이 바로 밝고 따뜻한 깨달음의 말씀"이라고 선지식들의 '말'을 수행정진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초롱 대표 양동진

현대인을 위한 불교 길잡이

현대인의 불교

(정병조 지음, 9천원)

정병조 교수의 <현대인의 불교>는 어리석음에 대한 진실, 살아가며 배우는 진리, 지혜의 빛으로 나누는 삶 등 총 3부로 구성된 불교 수필집이다. 다소 어렵고 관념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불교적 진리를 편안하고 쉬운 필치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지은이는 우리의 일상사 하나하나가 불교적 진리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에 관심은 있으나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길잡이 역할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기영 박사의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는 지은이의 구도자적 삶과 불교적 사색의 편린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편집한 유고집이다. 이기영 박사는 생전에 한국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로 널리 알려졌던 불교학자로, 특히 원효 연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 결과 우리의 원효는 세계적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모아 놓은 글들은 수필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결코 가볍게만 읽을 수 없는 묵직한 울림을 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무더운 여름에 책읽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 모두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정병조

복잡한 인생살이 극복의 길

보왕삼매론 강의

(김현준 엮음, 5천원)

<보왕삼매론>은 매우 짧은 글이지만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간결하게 설하여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책이다.

이 책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각종 역경과 순경의 파도들을 잠재우는 방법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법 등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인생의 장애가 되는 일들을 원리에 입각하여 되돌아봄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교만에 빠져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왕삼매론 강의>는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장애를 향상의 기회로, 고난을 해탈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흘륭한 신행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효림 대표 김현준

가장 오래된 부처님 말씀

숫타니파타

(전재성 옮김, 3만원)

<숫타니파타>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아직 승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거친 사바세계를 항해하는 고독한 은둔자, 치열한 구도자로서의 경험과 인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이 책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충격적인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숫타니파타>는 이미 불교라는 종교적 테두리를 떠나 종교와 상관없는 세계의 고전으로 인간의 위대한 영혼의 양식이 되었고,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찬연하게 비추고 있다.

퇴현 전재성 박사가 <숫타니파타>의 빠알리어 원문을 대조하고, 지금까지 나온 세계의 모든 번역서를 참조하고, 2500여개의 많은 주석을 달아 새롭게 펴냈다. 많은 주석에도 불구하고 <숫타니파타>의 높은 문학성 덕분에 휴가철에서도 한번 읽기에 적합한 책으로,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말씀의 참다운 면모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도법